

한국 看護教育 理念定立을 위한 기초조사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회 간호교육
종합적 연구 위원회 (1974~1976)

· 집필책임위원 :

하 영 수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한 윤 복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교수>

· 위원 :

김 모 입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김 소 인
<고려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김 주희
<한양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변 창 자
<경희간호전문학교 부교수>

전 산 초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정 경 자
<서울의대 간호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⑤ 비판능력면 |
| II. 조사경위 | ⑥ 분석능력면 |
| III. 조사대상 및 방법 | ⑦ 종합능력면 |
| IV. 발견된 사실 및 제언 | ⑧ 응용능력면 |
| A. 일반적 특성 | 2. 행동수준별 |
| B. 간호교육 목표 | ① 학문적 차원 |
| 1. 행동특성별 | ② 직업적 차원 |
| ① 기본지식면 | ③ 개인적 차원 |
| ② 이해능력면 | ④ 여성적 차원 |
| ③ 태도면 | ⑤ 사회적 차원 |
| ④ 기능면 | |
| | V. 요 약 |

• 목차중

「고딕」체는 이 원호에 게재된 부분임

I. 서 론

교육의 목적은 모든 교육적 노력의 출발점이 된다. 교육목적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천명되고 인식되어 있어야만 교육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교육평가에서 능력이나 특성을 뚜바로 타당하게 측정 할 수 있다.

사회적 행위나 개인적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목적에 결부되어 있다. 특히 백년대계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 특성이 무엇인 신념의 바탕 위에서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¹⁾

¹⁾ 이경식, 교육철학적으로 본 간호교육", 대학간호 제14권 4호, p.47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의 목표는 명시된 것이 없었고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훌륭한 간호원을 육성한다”는 단연하고도 관념적 형태에 불과하였다. 간호학을 체계화하고 개념을 조직화하기 위해 간호원들이 활동하는 현실에서 의미를 줄 수 있는 간호개념을 형성하고 간호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간호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교육은 교육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보다는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념과 동기가 교육을 하는 교육자에게나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에게 다 함께 움직이지 않는 한 간호교육을 위한 제도와 시설 등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²⁾

한국의 간호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간호와 간호교육의 이념의 부족이다. 이는 학위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의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간호수행(Carrier Pattern)을 포함할 수 있는 간호이념 및 간호교육 이념이라야 한다.³⁾

간호교육은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개혁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모방단으로 이득될 수 없는 일이며 어느나라나 자주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요구가 갑자기 증가되었고 건강한 생활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장하게 되었다. 인구문제, 보건문제, 사회복지 및 공해문제 등이 등장하여 간호교육에도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니될 때가 왔다.

현대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오는 몇 가지 갈등에서 이념 대 현실에 대해 “개발도상국에서는 독특한 자기나라의 이념을 정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세계적 추세만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의 사조는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현실분석에 중점을 두어 개척적인 미래 사회건설에 치중해야 한다.”⁴⁾

간호의 이념적 가치추구는 구미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이념적 가치가 그 장점으로 받아들여져 토착화되어야 한다.⁵⁾

간호학이 국제성을 떤 학문이기에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수준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원의 활동은 그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및 시대적 여건에서 벗어 낼 수 없는 것이다. 간호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개혁하려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그리고 보건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 조사는 물론 사회적 가치·의식의 판단이 그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즉 간호의 목적의식과 간호원의 실제 자세, 교육과정의 인식성과 견해를 파악하여 간호이념 설정의 모형수준을 정하는 일은 간호교육자들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본다.

각 나라마다 간호의 개념은 특수하여 신축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호와 간호교육의 형태는 새로이 발생하는 필요와 상황에 맞도록 변화해야 한다.⁶⁾

과학적인 발전과 국제수준의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특성도 살리고 토착화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대화이다.⁷⁾

교육의 사회화는 오사이 와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교육개혁의 목표로 되어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화의 개념에 근거를 둔 주장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 사회의 수요(Social needs)에 응하게 하여 그 사회의 공동목표를 지향하고 그 사회발전에 공헌하게 만드는 것이다. 교육의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회 구조에 병목적으로 적응만 하게 하는 뜻이 아니고 그 사회에 발달이고 그 사회를 위하여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에는 비판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⁸⁾

본 조사의 목적은 간호교육에 종사하는 현직 간호교수, 간호원, 학생 및 의사를 대상으로 간호교육의 일반적 목표, 이념 및 특수 목표를 파악하고 분석하므로써 한국간호교육의 이념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2) 이영복, “간호교육의 이념”, 대한간호 제7권 3호, pp. 60~65

주3) Conroy, P. Nursing Education in the Korean University; Improving Quality, and Quantity of Professional Faculty, Yonsei University College, Teachers Seminar, Nov. 1970.

주4) 유인종, 교육철학—현대교육사조, 대한간호 제12권 4호 pp. 37~38

주5) 하명수, 한류간호사업의 진단과 문제점, 대한간호 제14권 5호, 1975, pp. 45~46

주6) Hilborn, H. Planning and Programming for Nursing Service, 이충희 옮김,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1971

주7) 이영복, 전자서

주8) 전종희, 의약교육, 한국의학교육협회, 1972년 10월

항으로 구성하였다.

II. 조사경위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974년(1974. 6. 4)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간호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시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74년 7월 22일에 모인 교육위원회에서 학회임원을 포함한 연구위원 8명(위원장: 하영수,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위원: 김고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소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김주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변창자; 경희대학교 전문학교 부교수, 전산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한윤복; 가톨릭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홍경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을 선출하였다.

체계적 연구를 하기 위해 1974년 9월 24일에 모인 연구위원회에서는 종합적 연구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제1단계로 간호이념 정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교과과정연구, 간호교육평가를 위한 연구의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의 범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조사지역으로 정하고 간호교육에 종사하는 현직교수, 학생(3,4학년), 간호원 이외에도 교육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의사(국공립, 사립병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가능한 한 조사의 계획시에 자문하기로 하여 자문위원 2명(장봉규 교수; 가톨릭의과대학 교육학, 이동우 교수; 연세대학교 통계학)을 선출하였다.

1975년 4월 25일에 소집된 연구위원회에서 간호이념정립을 위한 조사를 위해 간호이념설정의 모형수준과 그 구조를 충분히 토의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전문적 간호원에게 요구되는 행동특성을 내용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허스톤(Thurstone)의 태도 척도법을 적용하여 11단계에 걸쳐서 반응을 측정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또한 내용구성은 크게 행동특성별로 39문항, 행동수준별로 52문항, 총 91문

III. 조사대상 및 방법

작성된 설문지에 의해 직책별로 선정(간호원, 재학생, 대학원생, 대학조교, 교수, 간호행정가)된 6명의 대상에게(각 설문에 대해 전원이 합의함을 원칙으로) 예비조사(1975년 5월 23일~1975년 5월 24일)를 실시한 후 설문지의 용어와 문장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본 조사를 위해 전체 설문을 종합한 후 일련번호를 붙여 조사대상자에 충하여 인쇄하였다.

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단, 현직간호교수는 전수조사)으로 보집단으로부터 확률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크기와 추출율은 다음과 같다.

모집단	전수(약)	수출율	표본수	명칭
제 1 모집단	500	1.0	500	현직간호교수
제 2 모집단	3,600	0.1	360	3,4학년 학생
제 3 모집단	3,600	0.1	360	현직의사
제 4 모집단	4,000	0.1	400	현직간호원
			1,620	
			계	

자료의 수집은 조직화된 조사표에 의해 자기 기입식을 적용하였으며 혼자에서의 능률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의거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975년 7월 6, 7, 18일 조사자 12명을 선정하여 3일간의 훈련을 실시했다. 1975년 7월 30일부터 1975년 10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경북, 부산, 강원지역 등 총 1,6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346매의 조사서가 수집(85%)되었으며 부호화 및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하여 처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리커-트(Likert)식 5단계 평점방법에 의해서 측정, 평가하였다. 척도의 범위는 1.0에서 11.0까지로 정하였으며 척도의 수준 6.0을 중심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것으로 판정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측정, 평가하였다.

- 1.0~2.9; 매우 긍정적
- 3.0~4.9; 긍정적
- 5.0~6.9; 중립적
- 7.0~8.9; 부정적

9.0~11.0; 매우 부정적

IV. 발견된 사실 및 제언

A.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벤인별로 분석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별 분포: 조사대상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최소 20세부터 최고 60세 까지였는데 이중 20~24세가 가장 많았고(38.2%) 그 다음으로 25~29세(28.4%), 30~34세(15.2%), 35~39세(8.9%), 40~44세(3.1%), 45~49세(0.8%), 50~54세(0.4%), 55~59세(0.2%), 60세 이상(0.1%)의 순위로 적었다.

한편 직종별 연령분포에 의하면 현직 간호교수(38.6%)나 간호원(37.9%) 및 의사(41.0%)에 있어서 25~29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간호교수의 경우 30.3세 간호원의 경우 27.1세 및 의사는 31.5세였다(표 1)。

2. 성별 분포: 조사대상 총 1,346명의 성별분포에 의하면 여자가 1,056명(78.5%)으로 남자

287명(21.3%)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들의 직종별(현직 간호교수, 간호원, 의사, 학생) 남여의 분포에 있어서는 의사(7.8%)를 제외한 그의 직종에 있어서는 대다수(현직 간호교수 95.3%, 간호원 99.7%, 학생 98.6%)가 여자들이었다(표 2).

3. 최종학력별 분포: 조사대상들의 최종학력별 분포는 대학졸업이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전문학교(30.7%), 대학원(6.2%) 졸업의 순위로 적었다.

한편 최종학력을 직종별로 검토해 보면 현직 간호교수의 경우에는 대학졸업(39.7%)이 전문학교 졸업(32.9%)이나 대학원 졸업(26.1%)보다 많았다. 또한 의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전부(98.0%)가 대학졸업이었고 대학원 졸업은 1.7%로 적었다. 그러나 간호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다수(80.6%)가 간호전문학교 졸업이었고 대학졸업(17.4%)과 대학원을 졸업(0.3%)한 간호원의 수는 적었다(표 3).

4. 직위별 분포: 조사대상 중 현직 간호교수와 간호원 및 의사의 직위별 분포를 보면 현직 간호교

〈표 1〉

조사대상의 연령별 분포

직 위 연령	조사대상의 연령별 분포				계
	현직 간호 교수 실 수 %	간 호 원 실 수 %	의 사 실 수 %	학 생 실 수 %	
20 ~ 24세	46 (15.6)	142 (36.3)	3 (1.0)	323 (88.0)	514 (38.2)
25 ~ 29	114 (38.6)	148 (37.9)	120 (41.0)		382 (28.4)
30 ~ 34	68 (23.1)	49 (12.5)	88 (30.0)		205 (15.2)
35 ~ 39	39 (13.2)	30 (7.7)	51 (17.4)		120 (8.9)
40 ~ 44	17 (5.8)	8 (2.0)	17 (5.8)		42 (3.1)
45 ~ 49	5 (1.7)	1 (0.3)	5 (1.7)		11 (0.8)
50 ~ 54	3 (1.0)		3 (1.0)		6 (0.4)
55 ~ 59	2 (0.6)	1 (0.3)			3 (0.2)
60 세 이상	1 (0.3)				1 (0.1)
두 용 탑		12 (3.1)	6 (2.0)	44 (12.0)	62 (4.6)
계	295(100.0)	391(100.0)	293(100.0)	367(100.0)	1,346(100.0)

〈표 2〉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

직 위 성별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				계
	현직 간호 교수 실 수 %	간 호 원 실 수 %	의 사 실 수 %	학 생 실 수 %	
여 자	281 (95.3)	390 (99.7)	23 (7.8)	362 (98.6)	1,056 (78.5)
남 자	13 (4.4)	1 (0.3)	270 (92.2)	3 (0.8)	287 (21.3)
무 용 탑	1 (0.3)			2 (0.6)	3 (0.2)
계	295(100.0)	391(100.0)	293(100.0)	367(100.0)	1,346(100.0)

〈표 3〉

조사대상의 최종학력별 분포

최종 학력	현직 간호교수		간호원		의사		학생		계
	설수	%	설수	%	설수	%	설수	%	
전문간호학교 졸업	97 (32.9)		315 (80.6)		1 (0.3)				413 (30.7)
대학 졸업	117 (39.7)		68 (17.4)		287 (98.0)				472 (35.1)
대학원 졸업	77 (26.1)		1 (0.3)		5 (1.7)				83 (6.2)
3학년 졸업							268 (73.0)		
4학년 졸업							99 (27.0)		
무용 담, 무기재	4 (1.4)		7 (1.8)						11 (0.8)
계	295(100.0)		391(100.0)		293(100.0)		367(100.0)		1,346(100.0)

수에 있어서는 전임강사가 4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조교수(16.6%), 부교수(4.1%), 교수(1.4%)의 순위로 적었다.

한편 간호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평간호원(45.0%)이 수간호원(35.3%), 책임간호원(8.7%), 잠독간호원(7.4%), 과장(2.6%)보다 많았으며 의사의 경우는 수련의(46.8%), 인턴(21.8%), 과장(13.0%), 전임강사(6.1%), 조교수(5.8%), 부교수(2.0%), 평의사(2.0%), 병원장(1.0%), 교수(0.7%)의 순위로 적었다(표 4).

5. 근무기관별 분포: 조사대상들의 근무기관별 분포를 보면 간호전문학교(34.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종합병원(27.3%), 대학병원(22.4%)의 순위로 적었다.

한편 근무기관을 직종별로 검토해 보면 현직 간호교수의 경우 간호전문학교 출신(74.6%)가

〈표 4〉 조사대상의 직위별 분포

직위	현직 간호교수		간호원		의사		계
	설수	%	설수	%	설수	%	
교수	4	(1.4)			2	(0.7)	
부교수	12	(4.1)			6	(2.0)	
조교수	49	(16.6)			17	(5.8)	
전임강사	138	(46.8)			18	(6.1)	
조교	86	(29.2)					
과장			10	(2.6)	38	(13.0)	
간호감독			29	(7.4)			
수간호원			138	(35.3)			
책임간호원			34	(8.7)			
평간호원			176	(45.0)			
수련의					137	(46.8)	
인턴					64	(21.8)	
병원장					3	(1.0)	
평의사					6	(2.0)	
부응답	6	(2.0)	4	(1.0)	2	(0.7)	
계	295(100.0)		391(100.0)		293(100.0)		

〈표 5〉

조사대상의 근무기관별 분포

근무기관	현직 간호교수		간호원		의사		학생		계
	설수	%	설수	%	설수	%	설수	%	
전문간호학교	220	(74.6)					249	(67.8)	469 (34.8)
대학	69	(23.4)					118	(32.2)	187 (13.9)
대학병원			160	(40.9)	142	(48.5)			302 (22.4)
일반종합병원			223	(57.1)	145	(49.5)			368 (27.3)
무응답 무기재	6	(2.0)	8	(2.0)	6	(2.0)			20 (1.6)
계	295(100.0)		391(100.0)		293(100.0)		367(100.0)		1,346(100.0)

〈표 6〉

조사대상의 근무기관의 지역별 분포

근무지	현직 간호교수		간호원		의사		학생		계
	설수	%	설수	%	설수	%	설수	%	
서울	87	(29.5)	172	(44.0)	140	(47.8)	139	(37.9)	538 (40.0)
지방	200	(67.8)	182	(46.5)	129	(44.0)	228	(62.1)	739 (54.9)
무응답 무기재	8	(2.7)	37	(9.5)	24	(8.2)			69 (5.1)
계	295(100.0)		391(100.0)		293(100.0)		367(100.0)		1,346(100.0)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23.4%)보다 월선 더 많았다. 그러나 간호원과 의사의 경우에는 대부분(간호원 57.1%; 의사 49.5%)이 일반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이나 의사는 비교적 적었다.

학생의 경우에는 반수 이상(67.8%)이 전문학교에 재학중이었으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도 비교적 많았다(32.2%)〈표 5〉.

6. 근무기관의 지역별 분포: 조사대상들의 근무지를 서울과 지방으로 대별해 보면 서울(40.0%)이 지방(54.9%)보다 약간 많았다.

또한 근무지를 직종별로 검토해보면 협직간호교수와 간호원 및 학생의 경우에는 지방(67.8%, 46.5%, 62.1%)이 서울(29.5%, 44.0%, 37.9%)보다 많았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44.0%)보다 서울(47.8%)이 약간 더 많았다 〈표 6〉.

7. 협직경력별 분포: 조사대상들의 협직 경력별 분포를 보면 5년 이하에서부터 25년 까지의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중 5년 이하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년이 10.0%, 11~15년이 5.5%, 16~20년이 1.7%, 21~25년이 0.3%로 경력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적었다.

또한 직종별 경력의 분포에 있어서도 협직 간호교수와 간호원의 경우 5년 이하가 반수이상(61.0%~73.6%)을 차지하였으며 6~10년, 11~15년, 16~20년의 순위로 적었다 〈표 7〉.

8. 지도경력별 분포: 조사대상들의 지도경력별 분포에 의하면 협직간호교수를 제외한 타직종에 있어서 대부분(간호원 71.7%; 의사 60.4%)이 지도경력이 없었으며 지도경력이 있는 경우는 적었다. 그러나 협직 간호교수에 있어서는 대부분(88.9%)가 지도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중 1~5년의 경력을 가진 교수가 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의 순위로 적었다 〈표 8〉.

9. 담당과목별 분포: 조사대상 중 협직간호교수와 의사의 담당과목별 분류를 보면 협직간호교수의 경우 대부분(91.2%)이 간호학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외 교직과목 등 간호학과목이 아닌 타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8.8%).

그러나 의사의 경우에는 반수이상(52.9%)이 임상의학과목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기초의학 담당교수도 비교적 많았다(47.1%). 담당과목의 순위별 분포는 〈표 9〉에서와 같다. 〈계속〉

〈표 7〉 조사대상의 협직 경력별 분포

직위	협직 간호교수		계
	설수	%	
5년 이하	180 (61.0)	289 (73.6)	469 (68.5)
6~10년	68 (23.1)	62 (15.9)	130 (19.0)
11~15년	25 (8.5)	13 (3.3)	38 (5.5)
16~20년	4 (1.4)	8 (2.0)	12 (1.7)
21~25년	2 (0.6)		2 (0.3)
무응답	16 (5.4)	19 (5.1)	35 (5.0)
계	295 (100.0)	391 (100.0)	686 (100.0)

〈표 8〉 조사대상의 지도경력별 분포

지도경력	협직 간호교수			계
	설수	%	설수	%
전혀없다	19 (6.4)	280 (71.7)	177 (60.4)	476 (48.9)
1~5년	166 (56.3)	85 (21.7)	86 (29.4)	337 (34.4)
6~10년	55 (18.6)	18 (4.6)	15 (5.1)	88 (9.0)
11~15년	28 (9.5)	4 (1.0)	3 (1.0)	35 (3.6)
16~20년	9 (3.1)	3 (0.8)	1 (0.3)	13 (1.3)
21~25년	2 (0.6)			2 (0.2)
26~30년	2 (0.6)	1 (0.3)		3 (0.3)
무응답	14 (4.7)		11 (3.8)	25 (2.6)
계	295 (100.0)	391 (100.0)	293 (100.0)	979 (100.0)

〈표 9〉 조사대상의 담당과목별 분포

직위	협직 간호교수		의사
	설수	%	
담당과목			
기초 간호학	77 (26.1)		
성인 간호학	70 (23.7)		
모성 간호학	18 (6.1)		
아동 간호학	15 (5.1)		
보건 간호학	38 (12.9)		
정신 간호학	17 (5.8)		
간호 사회학	18 (6.1)		
간호종합실습	7 (2.4)		
산부인과학			29 (9.9)
내과학			38 (13.0)
소아·과학			22 (7.5)
외과학			52 (17.7)
정신과학			14 (4.8)
기타	26 (8.8)		26 (8.8)
무기재			134 (47.1)
계	295 (100.0)		293 (100.0)